

12 2020 KUSF 대학농구 U-리그

3전패 이은 3전승... '대역전' 일궈낸 경희대 농구부

허지영 기자 jy000224@knu.ac.kr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경기도 이천 LG 챔피언스파크 체육관에서 '2020 KUSF 대학농구 U-리그'가 진행됐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해당 리그에서 1차 대회에서 3전패, 2차 대회에서 3전승을 기록하며 역전의 서사를 그렸다.

올해 대학농구 U-리그는 18개 대학이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의 136경기 대비 55경기로 대폭 축소하였고, 대회 형식도 1차와 2차 대회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는 변동 사항이 있었다.

1차 대회에서 우리학교는 한양대, 고려대, 동국대와 함께 예선 A조 경기에 참가했다. 가장 먼저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자유투를 내어주며 75-76으로 아쉽게 패했다. 이어진 동국대와의 경기에서는 김준환 선수와 이용기 선수의 활약이 있었지만 79-82로 패했다. 한양대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3-2 지역방어 전술을 펼친 한양대에 72-90으로 패했다. 결과적으로 예선 3전패를 당한 것이다. 김준환 선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우리학교 농구부를 코치한 김현국 감독은 1차 대회 3전패의 원인을 '연습 부족'과 '개인플레이'로 뽑았다. 김 감독은 "이번 대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3번 취소됐었다. 갑자기 일정이 다시 잡히면서 경기를 뛰기 위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준비되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회 한 달 전인 9월에도 사회



선수들은 이번 대학농구 U-리그를 통해 "이타적" 플레이의 중요성을 깨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한국대학농구연맹 홈페이지)

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체육관과 기숙사 이용에 제한이 있었기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선수들 각자 훈트레이닝과 개인기 연습을 하며 경기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선수 각자가 진행한 개인 연습의 결과는 1차 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합이 잘 맞는 팀플레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선수들 각자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에 바빴다.

1차전 대회 직후의 상황은 암담했다. 몇몇 선수들이 부상을 입거나 팀의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졌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2차 대회는 불

침하자"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모든 선수는 부진한 모습을 회복할 기회인 2차 대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개인 역량보다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팀원들과 어울려 최고의 경기를 펼치겠다는 마음가짐을 공유하면서,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2차 대회에서 우리학교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특유의 장점인 방어 이후 빠르게 이어지는 공격을 최대로 펼치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2

차 대회 첫 경기였던 상명대와의 경기에서는 89-62라는 큰 점수 차로 승리했다. 김준환 선수뿐 아니라 이용기, 김동준 선수 등이 연달아 득점하며 안정적인 점수 차이를 확보한 덕분이었다.

이후 건국대와의 경기에서도 득점 분위기를 연이어 가져오며 78-59로 안정적인 승리를 획득했고, 단국대를 77-71로 꺾으면서 조 1위를 달성했다. 1차 대회 3전패에 그친지 불과 1주일 만에 우리학교는 3전승을 다시 기록했다. 마음가짐의 변화 하나만으로 우리학교 농구부는 2차 대회에서 명예를 회복

했던 것이다.

우리학교는 2차 대회 예선 조 1위, 승률 100%로 결선에 오르면서 고려대와 준결승을 치렀다. 하지만 1쿼터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쿼터에서 급히 추격하는 듯 했으나, 최종 63-95로 패하였다. 김 감독은 "라인업에 있어 판단미스가 있었다"며 "실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도 했고, 초반에 무너져 경기력이 올라가기 힘들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록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대학농구 U-리그가 우리학교 농구부 선수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타적' 플레이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농구부 이용기 주장은 "경기를 위해 공격을 하는 선수들이 체력을 더 아낄 수 있도록 옆의 선수들이 수비와 리바운드를 해주는 팀플레이를 진행했다"며 경기 당시를 회상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용기, 김준환 등 4학년 선수들은 졸업하게 된다. 이 선수는 올해 대학 리그에 대한 소감으로 "1차 대회에서의 부진을 2차 대회에서 잘 극복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잘 따라와 준 1, 2학년 후배들에게 고맙다"며 후배들을 쟁겼다. 김 감독은 "작년과 올해 대학농구리그에서는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며 "내년에는 마지막까지 선수들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이름에 어긋나지 않게 경희대다운 농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 1차 학생 신청기간 : 2020.11.24.(화) 09:00 ~ 12.29.(화)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11.24.(화) 09:00 ~ 12.31.(목) 18:00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 <http://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주소 : <http://mo.kosaf.go.kr/apps>
- 공인인증서 필요

5.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